| 현불 논단 |

한일 갈등과 민족주의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日 경제보복 인해 韓 분노 상황
아베, 민족주의 이용 통치권 유지
한국도 민족주의적 대응으로 맞서

현 갈등서 '민족주의 그림자' 본다
근현대사 비극 민족주의 충돌 기인
통치자들 권력 유지 도구로 활용해

규탄 대상, 일본인 아닌 '아베 집단'
한국 사회 '시민 민족주의' 지향하며
민족 간 공존의 국제평화주의 선도를

현해탄을 사이에 둔 한 · 일 양국 간의 갈등 파도가 심상치 않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도 점점 높아가고 있고,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저항하는 의병 용어들이 언론 지면에 등장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갈등과 불화를 보면서 필자는 민족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도 바로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자는 것이다. 조선을 병합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황국사관(皇國史觀)의 이념 틀을 계승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도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기 시작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개인을 정치 공동체로 뭉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 양면성을 지닌 패러독스에 가득 찬 이념이다. 정치 통치자들은 민족주의가 지닌 종족 본능을 자극하는 '원시적 통합성' 때문에 이를 통치 방법으로 이용하고픈 유혹을 항상 받는다. 근현대의 많은 정치적 비극은 민족주의의 충돌에서 야기되고 있다. 많은 통치자는 이 충돌을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유지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

필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 행위는 단순히 강제 징용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본다. 동아시아의 역학 관계 변화와 세계경제의 재편 과정에서 형성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다. 또한 일본을 옥죄고 있는 평화 헌법을 파기하고 새로운 욱일승천을 꿈꾸는 아베 집단의 욕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안도 다차원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큰 틀로 접근해야 한다.

오늘날 국가는 세계화의 관계망 속에 편입되어 있다. 민족국가의 성격도 변해가고 있으며, 국가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관념도 변화고 있다. 민족주의는 크게 '인종적 민족주의' '국민적 민족주의' 그리고 '시민적 민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족주의는 '시민적 민족주의'라고 생각한다. 시민적 민족국가의 구성원은 자신의 지방성과 세계 시민성을 동등하게 겸비한 자아를 지닌다. 이러한 시민적 민족주의는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다원주의와 자기 존재감을 가지면서 민족 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국제 평화주의를 지향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과 일상적인 경제적 삶의 방식에 대해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에 대해 국민 개개인은 품격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일본인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규탄해야 할 대상은 아베 집단과 그 야망이다. 품격 있는 대응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에 온 일본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방안은 일본인이 한국의 문화와 풍습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민 민족주의의 길일 것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면서 일본인에 대해 열린 배려의 자세를 가질 때 많은 일본인이 한국의 팬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일본인이 일본을 좋은 이웃 국가로 만들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는 민족과 국가의 단위를 떠난 큰 지혜의 틀에서 한일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팔정도(八正道)를 지금의 세간사로 해석하여 한일 갈등에 대입하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社 說

진각종 제 13대 총인 추대에 부쳐

진각종 제13대 총인에 경정 정사가 추대됐다는 소식이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는 7월 25일 서울 총인원에서 회의를 열고 경정 정사를 추대했다.

경정 정사의 임기는 8월 1일부터 5년간으로, 법통승수식을 거행한 후 본격적인 직무에 임하게 된다.

총인은 진각종의 법통과 교법의 신성을 상징하는 최고 권위를 갖는 직책이다. 그만큼 '총인'이라는 지위가 갖는 무게는 남다르다.

제13대 총인으로 추대된 경정 정사는 일선 포교 현장의 주교부터 종단 교육원장, 위덕대 교수 · 부총장 등 교육기관 수장까지 두루 거친 진각종단의 스승이다.

올해 초 진각종은 종단 산하 진각복지재단 내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한동안 내홍을 겪었다.

당시 문제가 된 재단의 고위 관계자는 당시 총인 회정 정사의 자제여서 더 충격을 줬다. 결국 지난 5월 9일 진각종 신도 기구인 총금강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안팎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5월 25일 회정 정사는 총인에서 물러났다.

전임 총인 사퇴 후 63일, 약 2개월 만에 새로운 총인이 추대됐다. 새 총인이 된 경정 정사는 그간 흩어진 종단의 원력과 역량을 다시 추스르고 모아 진각종이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

한국불교의 정통 밀교 대표 종단은 진각종이다. 생활불교와 실천불교를 지향하는 진각종이 새로 추대된 총인과 함께 한국불교 발전을 견인하는 종단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부산 포교사단 회관 건립 '귀감'

부산 불교계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문을 연 포교사단 회관 개소식 이야기가 불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은 7월 21일 부산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에서 회관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회관을 위해 부산 포교사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특히 부산지역 포교사들은 성지순례마다 통깨를 주부들에게 팔며 불사금을 모았다. 한두푼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 불사금이 모이기 시작했다. 땡볕에서도 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부산 불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들의 활동 소식을 들은 부산불교계에서 다양한 후원금이 모연됐고 1년여 만에 회관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은 직접 회관 내부 인테리어와 공사까지 진행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포교활동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상주인력이 필요한 사무실과 같은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이번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의 사례를 보면 그 구심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나타난다. 물리적인 포교회관이 아닌 부산지역단 소속 포교사들이 보여준 하나된 마음이 바로 포교의 구심점이 아닐까. 지역단 회관 개소를 위해 부산지역 640여 포교사들이 보여준 모습이야 말로 부산 포교를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제 불교계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현재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지역단 포교사들이 보여준 원력과 감동이 필요하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지구 위한 '장바구니' 패션 코드

지난해 여름, 인도 콜카타에 며칠 머물다 왔다. 그곳에 머무는 며칠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노 플라스틱(No plastic)'이었다. 하루에도 수없이 그 말을 외친 주인공은 나의 인도인 친구 밀라였다. 밀라와의 인연은 조선소 기술자로 일하는 남편을 따라 부산에서 살던 밀라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을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각별한 우정을 나누다 인도로 돌아간 뒤 부산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왔던 밀라의 간절한 요청에 못 이겨 방글라데시 방문길에 아들과 함께 콜카타로 날아갔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었던 두 마디 외침! "No plastic!"

짧은 체류기간이어서 다른 곳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콜카타에만 머물며 현지인처럼 살았다. 가까운 공원을 거닐고 재리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그렇게 밀라와 일상을 함께 하니 그녀의 삶이 그대로 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디를 가든지 들고 다니는 그녀의 낡은 천 가방이었다. 그리 크지 않은 천 가방 두 개는 어딜 가나 그녀 손에 쥐어져 있었고 어디서 무엇을 사든 거의 기계적으로 비닐봉지를 꺼내드는 사람들을 향해 그녀는 외쳤다. "No plastic!"

그리고 천 가방 입구를 커다랗게 벌리고 물건들을 넣었다. 재래시장에 갔을 때는 저러다 목 아프겠다 싶을 정도로 수없이 그 말을 반복해야만 했다. 줄 지어 선 노점들을 따라 걸으며 모든 상인들에게 같은 말을 외친 후 콩, 바나나 꽃, 오이, 당근, 토마토 등을 모두 천 가방에 받아 들었다. 어느새 묵직해진 밀라의 천가방 중 하나를 받아 메고 걸으며 내심 그녀의 철저한 실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의 실천을 부끄러움과 함께 돌아보게 되었고 이렇게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지구 한편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와 안도를 느꼈다. 밀라가 내가 머무는 동안 쓴 비닐봉지는 단 한 장. 젖어 있는 진흙을 장바구니에 그냥 넣을 수 없어 난처해하며 쓴 게 유일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전에도 나름 환경을 생각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건 턱없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했다.

한국에 돌아와 한국에서 유학 중인 밀라의 딸을 만났다. 딸은 엄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가 엄마한테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담아주면 우리 엄마는 거의 울어요"라고. 그러고 보니 나는 내 친구 밀라가 울 일을 참 많이도 하고 살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 나의 비닐봉지 소비량은 급격하게 줄었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내미는 게 나에게도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를 사용하기 전, 내 친구 밀라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란다. 그녀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외쳤던 지구를 위한 진실한 말, "No plastic"을 함께 외치고 싶다.

'패션의 완성은 가방에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성립하는지는 확신이 없다. 패션에 관심이 많지 않는 나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구를 구하는 패션의 완성은 장바구니에 있다'는 것이다.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밀라가 그토록 아름다웠으니 지구를 위한 장바구니 패션, 우리의 패션 코드로 손색 없지 않겠는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